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제 14 권 제 1 호, (2006. 2), pp.64~78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패션 이미지에 대한 조형성 분석

정 해 선† · 강 경 자*
서울정보기능대학 패션디자인과, 경상대학교 생활과학부 의류학과*

An Analysis of Formative Properties for the Hat and the Fashion Image in the Fashion Collection

Hae-Sun Jeong† and Kyung-Ja Kang*
Dept. of Fashion Design, IT Polytechnic College
Dept. of Clothing and Textiles, Gyeong Sang National University*
(2005. 11. 01 접수 : 2006. 01. 13 채택)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t a characteristic design by analyzing formative properties for the hat and fashion image shown in fashion collections from the S/S season of 1998 to the F/W season of 2004 in recent seven years. For the study, the 96 stimuli which found frequently in fashion collection were selected. The examines for the image evaluation were women college students majoring fashion design related fields and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Gyeongsangnam-do. Data collection was performed in August 2004. As statistical methods for data analysis, internal consistency method, Factor Analysis, MANOVA were used.

Based on the analysis of 31 pairs of adjectives for elucidating the total 96 stimuli which were devised by altering the types of garment, the relation between a garment and a color of hat, the types of hat, the length of hair, and the material and design of garment, five factors or attractiveness, gracefulness, concentration, cuteness, and hardness and softness were deduced. And it showed much difference in the types of garment, the relations between a garment and a color of hat, the types of hat, the length of hair, and the material and design of a garment.

Key words: fashion collection(패션컬렉션), formative properties(조형성), hat(모자), fashion image(패션 이미지).

Ⅰ. 서 론

최근의 패션 경향은 생활 문화에 의한 라이프스타일이 급속히 변화되고 가치관도 다양화되면서 패션 이미지를 자유롭게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게 되었고 따라서, 액세서리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액세서리는 복식의 전체적인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이미지를 자유롭게 또는 개성 있게 표출할 수 있는 도구로서 주목되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패션 디자이너들의 컬렉션에서도 의상과 액세서리를 코디네이션 하여 계절마다 창의적인 새로운 모드를 발표하고 있으며, 토털 패션을 지향하는 패션 코디네이션에서 액세서리의 개념은 차별화되고 개성

† 교신저자 E-mail : hsjeong@kopo.ac.kr

적인 미적 표현의 한 방법이 되었다.

일반적인 패션 코디네이션 아이템으로는 구두, 핸드백, 지갑, 벨트, 모자 등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모자는 머리에 착용하기 때문에 복식 가운데 최상부에 위치하고 그 인상을 강하게 하므로 패션 코디네이션 아이템 중에서 가장 시선을 집중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이다. 특히 모자는 개성을 보여주기에 적합한 복식요소로 시대의 사회, 문화적 환경을 반영하고 변화해 왔으며, 의상의 부속품이 아닌 패션을 주도하는 역할의 한 부분으로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선행 연구들[1~4]에서 인상은 의복만으로 전달되지 않고 신체 특히 신체 부위중 헤어와도 관련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나광주(1989)는 의복과 헤어 스타일은 인상 형성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지만 사람들은 의복보다 헤어 스타일이 자신을 더 변화시키는 요인으로 지각한다[5]고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헤어 부분이 의복에 비해 비율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인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면 인상이나 패션 이미지에 미치는 모자의 영향 또한, 과소 평가할 수 없다. 그러나 20세기 이후 모자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모자 디자인의 특성을 연구[6]하거나 한지나 펠트, 문양을 이용한 모자의 소재와 응용 디자인을 제시한 연구[7]들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또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패션 트렌드와 관련한 연구들[8~10]은 있으나, 모자와 관련한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이미지 평가에 관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매년, 매시즌 발표되는 컬렉션을 통해 패션 트렌드를 살펴보면 모자를 착용한 스타일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국내 의류업체들은 패션 컬렉션에서 토탈 패션을 지향하는 이러한 경향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예측을 위한 중요한 유행 정보로 사용한다. 따라서, 모자를 착용한 패션 이미지를 중심으로 세계적인 컬렉션 즉, Paris, Milan, New York, London, Tokyo 등에 나타난 모자와 패션 이미지에 대한 조형성 평가는 의미가 있다고 본다. 모자 착용의 패션 이미지는 모자와 의복이 통합되어 하나의 이미지를 형성하게 되므로 모자와 함께 복잡하고 다양한 의복의 조형요소들은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컬렉션을 통해 모자를 착용한 상태의 패션을 보는 지각자들은 각기 지각하는 이미지가 다를 수 있다. 더구나 지각자들은 주관적인 입장에서 평가하기 때문에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하나의 공통된 이미지를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와 수집된 자료 중 모자를 착용한 각 연도 및 시즌, 그리고 컬렉션별 빈도수가 높은 1998년 S/S부터 2004년 F/W까지 최근 7년간의 패션 컬렉션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대표적인 모자 종류와 모자를 착용한 디자인의 패션 이미지에 대한 조형성을 분석하여 토털 패션을 추구하는 변화된 패션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상품 기획과 액세서리의 트렌드를 예측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Ⅱ. 이론적 배경

의복 조형성(Clothing formative property)이란, 의복

1) B. H. Conner, K. Peters and R. H. Nagasawa,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1 (1975), pp. 32-41.
2) R. L. Terry and J. S. Davis,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2 (1976), p. 918.
3) S. M. Pancer and J. R. Merndi,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84 (1978), pp. 1328-1330.
4) S. J. Lennon and F. G. Miller,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3 No. 1 (1984-1985), pp. 1-8.
5)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6) 서희정,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7) 박혜경,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 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8) 윤수정, "패션트렌드의 다중화,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2).
9) 주소현, "여성 패션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 지표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10) 김윤경, "패션트렌드 분석을 통한 남성 패션 스타일의 변화 모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3).

의 양식 또는 스타일을 이루는 형태적 측면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형태, 색채, 소재, 무늬, 장식의 요소로 정의할 수 있으며, 모자 스타일의 조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도 모자 종류, 의복 형태, 색상, 헤어 스타일, 재질, 무늬 등이라 할 수 있다.

이미지 평가나 인상 형성과 관련한 선행 연구들을 보면 연구자에 따라 사용된 변수들에서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의복의 세부적 변인들이 의복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의복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 그리고 사용한 변수들에 의한 착용자의 인상 차이와 이미지 평가의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러나 코디네이션 관련 외모 변인들에 의한 이미지 평가와 조형성 연구는 미비하며 본 연구와 관련한 변인들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모자에 대한 인상 형성에 관한 연구로서 정해선 · 강경자(2004)[11]는 헤어 스타일, 헤어 길이, 모자 종류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22쌍의 형용사 쌍을 요인 분석하여 인상 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모자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본 결과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명쾌성 요인, 주의집중성 요인, 귀염성 요인의 5개 차원으로 도출됨을 밝혔다.

정해선 · 강경자(2004)[12]의 또 다른 연구인 상의 색과 모자 색, 모자 종류가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모자 종류와 색상 조합이 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서로 사용된 모자 종류(Beret, Cloche, Bowler, Capeline), 모자 색상(빨강, 파랑, 베이지, 회색), 상의색(모자와 이색 또는 동색)에 대한 모자 착용자의 인상이 몇 개의 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33쌍의 형용사 쌍을 요인 분석하여 인상 차원을 밝히고, 이들 단서들이 어떻게 조합되어 인상에 영향을 미치는지 상호작용 효과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상의색, 모자색, 모자 종류에 따른 모자 착용자의 인상 차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주의집중성 요인,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활동성 요인, 온유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상의색, 모자색, 모자 종류가 착용자의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인상 차원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었다.

의복 형태 및 색상에 따른 이미지 평가 관련 연구에서 이주현 · 조금호(1995)[13]는 짧은 skirt의 suit 착용자는 긴 skirt의 suit 착용자보다 더욱 능력 있고 활동적이며, 덜 사무적이고 더 어려 보이며, 화려하고 눈에 띄며, 더 호감이 가고 매력적이며, 밝고 깔끔한 사람으로 지각되었다. 따라서 skirt 길이는 suit 착용자의 인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의상 디자인 요소라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의 길이는 실루엣의 주요 결정요소이며 실루엣은 의복 착용자에 대한 사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다.

Thurston, Lennon & Clayton(1990)의 연구[14]에서는 여성의 전문적 이미지가 의복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원피스보다 수트가 전문적 이미지가 높았으며, Winakor와 Navarro(1987)[15]는 의복 색의 명도(어두운, 중간, 밝은)와 의복 종류(dress, suit, sports)가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는데 착용자에 대한 호감 평가에서 의복의 명도는 비체계적인 영향을, 의복은 더 체계적이고 강한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의복에 표현된 색상은 우선적으로 지각되는 요소로서 의복 착용자에 대한 지각과정에서 심리, 생리적으로 작용하며, 색이 가진 이미지에 의해 의복 이미지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계절감도 표현하는 역할을 한다. 山野清一郎, 尹藤純子, 牧眞理子(1980)[16]는 의

11) 정해선, 강경자, "헤어스타일 ·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2004), pp. 460-471.

12) 정해선, 강경자,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권 3호 (2004), pp. 354-368.

13) 이주현, 조금호,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 (1995), pp. 747-764.

14) J. L. Thurston, S. J. Lennon and R. V. Clayton, "Influence of age bodt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anl* Vol. 19 No. 2 (1990), pp. 139-150.

15) G Winakor and R Navarro,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1987), pp. 137-147.

16) 山野清一郎, 尹藤純子, 牧眞理子, イメージ用語による シルエットの分類(4). *繊維製品消費科學誌*, 21卷 8号 (1980), pp. 341-347.

복 디자인에 있어서 의복의 구성선보다는 색채가 의복의 이미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히면서 색채 효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주현(1990)의 의복 종류, 허의 길이, 칼라 종류, 의복색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17]에서 수트의 색은 능력-활동성, 주의 집중성, 깔끔함 차원에서 착용자의 인상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명희 · 강승희(1998)의 연구[18]에서도 빨강 재킷이 무채색보다 더 젊어 보이고 더 능력 있게 지각되었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을 종합해 보면 색상은 의복 이미지 중에서도 경량감 뿐만 아니라 현시적인 측면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자는 얼굴과 가장 가까운 곳인 머리에 착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자에 있어서도 색상이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판되고 있는 다양한 모자의 종류만큼이나 색상도 다양하다. 주로 단색을 많이 이용하고, 같은 색상이거나 보색을 이용한 디테일(Detail)을 사용하고 있다. 모자는 그 자체로서 표현되기 보다는 의복과 같이 이용되고 있어 현재 유행하는 의복의 색상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박혜경(1991)의 모자에 활용한 섬유재 연구에서도 모자의 배색은 단색 조화, 유사색, 다색, 대비색 순으로 나타났으며, 독특한 개성과 이미지를 표현하는 모자의 색상 선택에서는 의복과 동일색을 가장 많이 선택하고 있다[19]고 하였다.

복식이 집단을 나타내는 상징이라고 한다면 헤어 스타일은 상징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헤어 스타일은 영향력 있는 여러 가지 신체적 외모 변인 중 하나로 사회 개방화에 따라 젊은이들 사이에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 되고, 매스미디어의 확산에 따른 급속한 유행 및 계속적인 변화 속에서 더욱 중요한 복식 문화가 되어가고 있다. 사람의 첫 인상과 이미지를 좌우하는 요소의 한 부분으로 사회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며, 이처럼 사람의 외모를 좌우하는 요소로 패션과 함께 헤어 스타일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도주연(1991)[20]은 헤어 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 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연구에서 스트레이트는 수수하고 자연스럽고 청순한 이미지를 주고 웨이브는 촌스럽고 성숙한 이미지를 주며 짧은 머리는 도시적이고 남성적이며 중간머리는 촌스럽고 평범하며, 긴머리는 여성스럽고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윤지성(2000)의 헤어 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21]에서 같은 헤어 스타일이라도 컬러의 변화와 의복색의 변화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볼 수 있었으며, 의복형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 스타일과 헤어 컬러 또한 다르게 나타났다.

의복이나 모자에 사용되는 소재의 느낌은 심리적인 요소이다. 소재는 의복에 의해서 고상한, 혹은 쾌활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세 가지 똑같은 형태의 의복이 다른 소재로 만들어졌을 경우, 그 의복들이 세 가지의 다른 분위기를 전달하는 것을 볼 때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22], 의복의 디자인 색채와 함께 의복의 재질은 의류 제품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유행을 선도하는 것이다. 오해순 · 이경희(2002)의 연구[23]에서는 소비자의 의복 재질의 시각적 감성의 구성 요인과 의복 재질에 따른 시각적 감성 차이, 시각적 감성의 포지셔닝과 선호도, 구매 욕구와 쾌감에 있어 감성 어휘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으며, 추선형 · 김영인(2002)[24]은 색채와 질감에 의해 패션 소재를 분류하고 소재 이미지 종류를 분석하여 분석된 이미지를 바탕으로 패션 소재의 질감이 각 이미지와 어떠한 상관관계를 갖는지 밝혔다.

복장에 있어 무늬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무늬를

17) 이주현,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90), pp. 86-92.
18) 이명희, 강승희,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1998), pp. 1111-1121.
19) 박혜경, *Op. cit.*, p. 52.
20) 도주연,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1), pp. 21-58.
21) 윤지성,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p. 101-102.
22) Marian L. Davis,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 Prentice-Hall Inc., 1990), p. 167.
23) 오해순, 이경희,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0호 (2002), pp. 1412-1423.
24) 추선형, 김영인, "패션 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2002), pp. 193-204.

보았을 때 갖는 느낌은 무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브의 선과 형태, 모티브의 크기, 모티브와 배경과의 면적비, 모티브와 배경 색채와의 배색 관계, 옷감 또는 착용자를 보는 거리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특히 모티브와 배경과의 색채 대비 정도가 무늬의 성격을 크게 좌우하여 모티브와 배경의 색채가 유사할 때에는 부드럽고 온화한 느낌을 주게 된다[25]. Yukie Kato(1995)[26]는 패턴의 색채와 디자인이 인상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연구하기 위해서 무채색과 유채색이 주는 차이를 비교한 결과, 활동성 요인과 평가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성을 보였으나 다른 요인에 대해서는 공통성을 보이지 않았다. 세 가지 색의 본질적 요소는 능력 요인과 화려함 요인에, 디자인은 활동성 요인에, 색채와 형태는 평가 요인에 영향을 주었다. 그리고 밝은 톤 대신에 둔한 톤을 사용함으로써 채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색보다는 무늬 형태가 활동성 요인과 평가 요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김윤경 · 이경희(2000)[27]는 의복 무늬의 시각적 감성 연구에서 의복 무늬에 대한 시각적 감성 차원, 의복 무늬의 구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감성 차이, 시각적 감성 연구에서 의복 무늬에 대한 시각적 감성 차원, 의복 무늬의 구성과 인구 통계적 특성에 따른 시각적 감성 차이, 시각적 감성의 포지셔닝과 선호도, 구매 욕구, 쾌감, 고급감과 감성 어휘와의 단계적 관계를 밝힘으로서 시각적 감성에 대한 객관적 규명을 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는 연구 목적과 연구 대상에 따라 의복의 조형 요소들 즉, 형태, 색채, 재질, 무늬 등 사용한 변수가 차이는 있으나 이들 변인들이 패션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남을 밝혔다. 따라서, 이들 의복 조형 요소들이 모자와 함께 코디네이트 될 때는 어떤 이미지가 형성되는지를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Ⅲ. 연구방법 및 절차

1. 연구문제

본 연구의 목적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모자와 패션 이미지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힌다.

〈연구문제 2〉 모자와 패션 이미지 차원에 대한 조형성을 분석한다.

2. 실험절차 및 방법

1) 자극물 선정 및 제작

1998년 S/S부터 2004년 F/W까지의 세계 5대 컬렉션에 발표된 패션 사진을 Gap Press, Fashion News, Book Moda, Book Moda Collezioni, Collection, Collezioni Donna 등의 잡지를 조사하여 디자이너들의 작품 중 모자를 착용한 1,391점을 수집하였다. 수집 자료의 내용 분석 연구 결과 가장 빈도수가 많이 나타난 순서로 모자의 종류는 Beret, Cloche, Bowler, Capeline의 4가지 종류로 분류하였고, 헤어 길이는 정해선 · 강경자(2004)의 연구[28]를 중심으로 쇼트, 미디움, 롱의 3가지를 하였다. 의복의 형태는 상의/스커트, 상의/슬랙스, 원피스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의복과 모자의 색상 대비는 김유진(2002)의 연구[29]를 참고로 의복과 모자의 색상이 동색일 경우인 무채색과 유채색, 그리고 의복과 모자의 색상이 이색인 경우 배색된 색상 간의 차이가 적은 유사 배색과 색상 차이가 많이 나는 대비 배색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 모자와 의복에 사용된 재질은 오해순 · 이경희(1999)의 연구[30]를 참고하여 표면이 거칠어 보이는 트위드, 홈스펀, 헤링본이나 빳빳한 태피터 그리고 형태가 잘 잡히고 힘 있어 보이는 개버딘, 미슬린, 면, 펠트, 쿨울, 마 등은 딱딱한 것으로 기모가 있거나 파일이나 보풀이 있는 아스트라칸, 벨벳이나 벨베틴, 부드럽게 늘어지는 저지류 등은 부드러운 것으로, 비치는 것은 얇아서 비치는 오간

25) 이은영,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1983), p. 200.
26) Yukie Kato, "Effective factors for the imperssion of three-color desig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6 No. 3 (1995), pp. 249-259.
27) 김윤경, 이경희,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6호 (2000), pp. 77-88.
28)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0-471.
29) 김유진,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2), pp. 44-47.
30) 오해순, 이경희, *Op. cit.*, pp. 1412-1423.

자, 오건디, 시폰, 레이스 등으로 분류하고 만들거리거나 광택이 나는 브로케이드나 코팅류, 부드러운 광택이 나는 실크류는 광택 있는 것으로 구분하여 딱딱한, 부드러운, 비치는, 광택 나는 등 4가지로 분류하였고, 무늬의 분류에 있어서는 의복의 무늬는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구분하여 조형성 분석을 위한 기준으로 조작하였다.

전체 사진 자료중 본 연구의 기준에 적합한 96개의 자극물을 Data Base를 통해 선별한 후 선별된 자극물이 컬렉션 때마다 변화되는 배경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Photoshop 7.0 program을 이용하여 중간 명도의 회색으로 처리하여 통제시켰다. 또한 모델들의 얼굴에서 오는 인상이 이미지 평가에 미칠 영향을 고려하여 얼굴 부분을 흐리게 처리하였다.

2) 실험 설계

패션 이미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모자 종류(4)를 기준으로 하여 배색된 색상(4) 별로 헤어 길이(3), 재질(4), 무늬(2)가 모두 포함된 의복 형태(3)를 각각 2가지씩 선정하여 총 96개의 (4×4×(3×2)) 자극물이 선정, 조사되었으며, 자극물 조작 내용은 〈표 1〉과 같다.

96개의 자극물을 32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한 사람이 3개의 자극물을 보고 평가하도록 하였다. 이때 피험자에게 제시되는 자극물에 의한 순서 효과를 고려하여 한 사람의 피험자가 모자 종류가 각기 다른 3개의 자극물을 평가하도록 조작하여 제시하였으며, 하나의 자극물을 12명씩 평가하였다.

3) 의미 미분 척도

의미 미분 척도 문항을 구성하기 위해 먼저 의복 및 헤어의 대인 지각에 관한 선행 연구[31~35]를 참고한 형용사와 컬렉션에서 나타난 의복 전체 이미지의 평가를 위해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추가하여 34쌍의 형용사쌍 중에 적절하다고 생각되는 형용사를 추가하여 34쌍의 형용사쌍 중에 적합성 여부를 검토한 후 인상 평가 어휘로 부적절한 평가를 받은 형용사쌍을 제외하고 31개의 형용사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각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 평정법으로 평가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피험자는 서울, 경남에 거주하고 있는 패션 디자인 관련 여대생을 선정하였으며 평가는 총 4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 결과 400부를 회수하였으나 이중 미비한 자료는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84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자료 수집은 2004년 8

〈표 1〉 자극물의 조작 분류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	
Beret	1	쇼트	1	원피스	1	동색	무채색	1	딱딱한	1	무	1
Cloche	2	롱	2	상의/스커트	2		유채색	2	부드러운	2		
Bowler	3	미디움	3	상의/슬랙스	3	이색	유사배색	3	비치는	3	유	2
Capeline	4						대비배색	4	광택 나는	4		

31) 남미우, 강혜원,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권 2호 (1996), pp. 241-257.
32) 김복숙,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33) 윤지성, *Op. cit.*, p. 24.
34) 윤소영,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 34.
35) 정해선, 강경자, *Op. cit.*, p. 361.

월 19일~9월 4일에 이루어졌다.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에 따른 이미지 차원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성분 분석방법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이용하여 요인 분석을 하였다. 도출된 요인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해 본 결과 총 31개 형용사쌍에 대해 α=.82이며, 용어들은 내적 일관성이 있게 평가되었다.

도출된 각 인상 요인들 즉,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각각 .99, .88, .88, .74, .63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목적 수행에 따른 분석방법으로 내적일관성법, 요인분석, 분산분석(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결과 및 논의

1. 모자와 패션 이미지의 요인 구조

모자와 패션 이미지에 대한 요인 구조를 밝히기 위해 패션 컬렉션에서 가장 빈도수가 높은 모자 4가지 Beret, Cloche, Bowler, Capeline을 기준으로 의복형태, 의복과 모자 색상과의 배색 관계,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과 모자의 재질과 무늬의 유무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96개의 자극물에 대한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31쌍의 형용사쌍을 평가한 자료를 주성분모형과 Varimax 방법에 의해 요인분석한 결과 아이겐값 1.0 이상으로 하여 형용사쌍들이 5개 요인으로 묶이어 도출되었다. 구체적인 분석 결과는 〈표 2〉와 같다.

요인 1은 전체변량에 대한 설명력이 17.5%로 5개 요인 중에서 비교적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고, 보기 좋은-보기 싫은 세련된-촌스러운, 좋아하는-싫어하는, 매력 있는-매력 없는, 멋있는-멋없는,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자연스러운-어색한의 7개 형용사 쌍으로 구성되어 매력성이라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정숙한-정숙하지 못한, 차분한-차분하지 않는, 단정한-단정하지 않는, 지적인-지적이지 않는, 품위 있는-품위 없는, 안정된-불안정한, 우아한-천박한, 깨끗한-지저분한, 이성적인-감성적인, 청순한-요염한의 10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품위성이라 하였고, 전체 변량에 대한 설명력은 15.0%로 나타났다. 품위성 요인의 구성인자는 윤소영(2001)의 메이컵과 헤어 스타일에 따른 인상 관련 요인[36], 임남연, 강승희(2003)의 의복 유형과 헤어 스타일이 남성 인상에 미치는 영향[37]에서의 품위성 요인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3은 대담한-소심한, 강한-약한, 화려한-수수한, 특이한-평범한, 외향적인-내향적인, 강렬한-은은한,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의 7개의 형용사쌍이 포함되어 현시성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현시성 요인의 구성인자의 전체에 대한 설명력은 15.0%로 품위성 요인과 비슷한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요인 4는 귀여운-성숙한, 스포티한-드레시한, 어려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경쾌한-중후한의 4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귀염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해 8.1%의 설명력을 보였다. 요인 5는 부드러운-딱딱한, 따뜻한-차가운,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는 3개의 형용사쌍으로 구성되어 경연성이라 명명하였고, 전체변량에 대해 7.1%의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김애경(2003)의 Head Image의 패션 감성에 대한 평가[38]에서의 여성성 요인인자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회귀 모형 방식에 의하여 산출된 요인 점수들의 결과 해석은 요인 점수가 높을수록 심미성 요인에서는 보기 좋고 세련되고, 좋아하며, 매력 있고, 멋 있고 어울리며 자연스러운 것으로 지각되는 것을 의미하며, 품위성 요인에서는 정숙하고, 단정하고, 차분하고, 지적이며, 품위 있고, 안정되고, 우아하며 깨끗하며, 이성적이고 청순한 것, 현시성 요인에서는 대담하고 강하며, 화려하며, 외향적이고 특이하며 강렬하며, 자신감 있는 것, 귀염성 요인에서는 귀엽고 스포티하며 어려 보이고 경쾌한 것으로, 경연성 요인에서는 부드럽고 따뜻하며 여성스럽게 지각되는 것을 의미한다. 도출된 5개의 인상 요인이 전체변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62.8%로 나타났고, 귀염성, 경연성을 제외한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등 3가지 요인은 각

36) 윤소영, *Op. cit.*, pp. 33-38.
37) 임남영, 강승희,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2003), pp. 340-351.
38) 김애경,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pp. 32-34..

〈표 2〉 모자와 패션 이미지 요인 분석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요인 5	공통성(h^2)
보기 좋은-보기 싫은	.836	.257	.031	.052	.106	.780
세련된-촌스러운	.820	.108	.206	−.018	−.015	.727
좋아하는-싫어하는	.807	.158	.044	.091	.126	.702
매력 있는-매력 없는	.805	.022	.154	.018	.085	.680
멋있는-멋없는	.799	.141	.273	−.043	.035	.735
어울리는-어울리지 않는	.746	.271	.098	.089	.031	.648
자연스러운-어색한	.680	.216	−.001	.182	.192	.579
정숙한-정숙하지 못한	.071	.736	−.295	−.005	.076	.640
차분한-차분하지 않는	.117	.694	−.382	−.172	−.015	.671
단정한-단정하지 않는	.179	.693	−.264	−.013	−.018	.583
지적인-지적이지 않는	.372	.687	−.079	−.264	−.024	.687
품위 있는-품위 없는	.328	.677	−.032	−.273	.095	.651
안정된-불안정한	.236	.664	−.272	.017	.050	.574
우아한-천박한	.334	.589	−.097	−.213	.298	.603
깨끗한-지저분한	.420	.578	−.085	.042	.072	.524
이성적인-감성적인	−.058	.527	.183	.002	−.374	.455
청순한-요염한	−.141	.470	−.398	.260	.259	.533
대담한-소심한	.137	−.189	.799	−.032	−.031	.694
강한-약한	.058	−.034	.749	−.044	−.275	.643
화려한-수수한	.132	−.314	.739	−.033	−.163	.689
특이한-평범한	−.072	−.230	.723	.013	.093	.589
외향적인-내향적인	.167	−.218	.720	.188	−.118	.644
강렬한-은은한	.078	−.110	.707	−.002	−.284	.599
자신감 있는-자신감 없는	.354	.019	.647	−.013	−.066	.549
귀여운-성숙한	.022	−.105	−.122	.799	.137	.684
스포티한-드레시한	−.021	−.056	.027	.742	−.279	.633
어려 보이는-나이 들어 보이는	.206	−.053	.013	.731	.213	.626
경쾌한-중후한	.217	−.252	.363	.552	.237	.603
부드러운-딱딱한	.227	−.044	−.157	.169	.721	.626
따뜻한-차가운	−.039	.096	−.131	.168	.669	.503
여성스러운-여성스럽지 않는	.308	.115	.021	−.202	.658	.583
고유치	5.433	4.651	4.640	2.509	2.203	19.436
전체변량의 %	17.525	15.002	14.967	8.095	7.105	62.694
공통변량의 %	27.953	23.929	23.873	12.912	11.333	100.00

요인별로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2. 패션이미지 차원과 조형성

다양한 패션 이미지로 나타난 매력성, 품위성, 현시성, 귀염성, 경연성 차원들은 모자와 의복 조형 요소가 통합되어 지각된 것이라 보고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으므로 모자 종류와 헤어 길이 그리고 의복 조형 요소인 의복의 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재질, 그리고 무늬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모자를 착용한 패션 이미지의 각 요인 간에 대한 조형성을 알아보기 위해 패션 이미지를 종속변수로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의 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 재질, 무늬 등의 요소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F-value와 회귀계수 β 값에 따른 이미지 차이를 세부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매력성과 조형성

매력성에 대한 모자 스타일에 조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무늬를 제외한 모자 종류, 헤어 길이, 모자와 의복의 배색, 의복의 형태, 재질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모자의 종류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는 Beret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Capeline이나 Cloche, Bowler는 Beret보다 매력성이 낮게 나타나 Beret가 가장 매력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헤어 길이에서는 미디움 길이를 기준으로 살펴보았을 때 헤어 길이가 길 때는 매력성이 높게 평가되어 헤어 길이가 미디움보다 쇼트이면 매력이 없지만 헤어 길이가 길면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헤어 스타일, 헤어 길이와 모자 종류에 따른 인상 요인의 연구[39] 정해선 · 강경자(2004)에서의 스트레이트 롱일 때 가장 매력적으로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고, 도주연(1991)의 연구 결과[40]와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의복의 형태에 있어서는 원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상의/스커트, 상의/슬랙스는 매력성이 낮게 평가되었다. 따라서 원피스를 착용하는 것이 보기 좋고 매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의복과 모자의 색상 배색에 있어서는 무채색을 기준으로 볼 때 의복과 모자가 동색 배색인 무채색의 경우가 가장 높게 나타나 모자색, 상의색이 회색으로 동색인 경우 가장 매력적으로 보인 정해선 · 강경자, (2004)의 연구 결과[41]와 일치되었다. 재질에 있어서는 딱딱한 재질을 기준으로 볼 때 부드러운 재질이나 비치는 재질은 딱딱한 재질보다 매력적이 지만 광택 나는 재질은 매력 없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

〈표 3〉 매력성 요인에 대한 조형성

조형요소				β	TypeⅢ SS	F-value
모자	종류		Beret	0.00	35.080	12.030**
			Cloche	−.180		
			Bowler	−.182		
			Capeline	−.085		
헤어	길이		미디움	0.00	20.677	10.509**
			쇼트	−.114		
			롱	.044		
의복	형태		원피스	0.00	19.312	9.804***
			상의/스커트	−.149		
			상의/슬랙스	−.070		
	배색	동색	무채색	0.00	11.672	3.920**
			유채색	−.082		
		이색	유사배색	−.035		
			대비배색	−.114		
	재질		딱딱한	0.00	17.870	6.035**
			부드러운	.020		
			비치는	.096		
			광택 나는	−.067		
	무늬		무	0.00	1.917	1.919
			유	−.041		

** : $p<.01$,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39)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7-468.
40) 도주연, *Op. cit.*, pp. 31-35.
41) 정해선, 강경자 *Op. cit.*, p. 365.

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무늬가 있는 것은 매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무지로 된 재질이 매력성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상의 매력성과 조형요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큰 모자 종류와 헤어 길이, 의복 형태가 중요하며, 매력성을 높이려면 모자 종류는 Beret나 Capeline을, 헤어 길이는 길게, 형태는 원피스를 착용한다면 매력 있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2) 품위성과 조형성

품위성 요인에 대한 조형성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표 4〉에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의 형태, 배색, 재질, 무늬의 모든 조형요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모자 종류에 있어서는 Beret를 기준으로 하여 보았을 때 Cloche, Bowler, Capeline은 Beret보다 품위성에서 높게 나타나 Cloche 모자를 쓰면 가장 품위 있고, 지적이고, 단정하며, 청순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주는데 효과적이고 그 다음으로 Bowler, Capeline, Beret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헤어 길이에서는 미디움을 기준으로 볼 때 헤이 길이가 쇼트이면 품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헤어 길이가 길면 품위성이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행 연구[42]의 결과와 비교하면 스트레이트 미디움일 때 가장 품위 있는 것으로 지각된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는 상반신만을 평가한 것과 전신을 평가한 패션이미지에서는 헤어 스타일 비율의 차이가 있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여진다.

형태에서는 원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상의/슬랙스, 상의/스커트가 원피스보다 더 지적이고 정숙하고 차분하고 품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자와 의복의 배색에서는 동색으로 무채색인 경우를 기준으로 보면 모자와 의복의 배색이 무채색의 동색이면 보다 품위 있는 이미지로 평가되지만 동색인 유채색이나 이색의 배색은 품위를 떨어뜨릴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재질에 있어서는 딱딱한 재질을 기준으로 보면 딱딱한 재질이 부드럽거나, 광택나고, 비치는 재질보다 정숙하고 단정하고 이성적이고 품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광택나거나 부드럽고 비치는 재질은 불안정하고 천박하고 감성적인 이미지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무늬에 있어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무늬 없는 것이 있는 경우보다 품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품위성을 나타내려면 비교적 차이를 보인 의복무늬, 재질, 의복과 모자의 배색을 중시하여 무늬가 없는 무지와 딱딱한 재질 그리고 모자와 의복의 배색을 동색인 무채색으로 선택하면 보다 품위 있는 디자인이 될 것이다.

〈표 4〉 품위성 요인에 대한 조형성의 차이

조형요소				β	TypeⅢ SS	*F*-value
모자	종류		Beret	0.00	24.445	8.303**
			Cloche	.173		
			Bowler	.124		
			Capeline	.097		
헤어	길이		미디움	0.00	20.736	10.540**
			쇼트	.133		
			롱	−.003		
의복	형태		원피스	0.00	16.916	8.569**
			상의/스커트	.117		
			상의/슬랙스	.125		
	배색	동색	무채색	0.00	38.375	13.199**
			유채색	−.190		
		이색	유사배색	−.167		
			대비배색	−.051		
	재질		딱딱한	0.00	31.244	10.677**
			부드러운	−.151		
			비치는	−.098		
			광택 나는	−.138		
	무늬		무	0.00	32.099	32.991**
			유	−.167		

** : $p<.01$,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3) 현시성과 조형성

42) 정해선, 강경자, *Op. cit.*, pp. 460-471.

현시성 차원에 대한 조형성 차이를 〈표 5〉에 나타내었다. 헤어 길이를 제외한 모자 종류, 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 무늬의 조형요소에서 유의적이 차이가 나타났으며 모자 종류에서 다소 두드러진 차이를 보였다. 모자 종류에 있어서는 Beret를 기준으로 볼 때 Capeline, Bowler, Cloche 보다 가장 현시성 요인이 높게 나타났으며 정혜선 · 강경자(2004)의 연구[43]에서 Beret, Capeline, Bowler, Cloche 순으로 현시성이 높게 나타난 결과와 일치하였다. 의복 형태에서는 원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상의/슬랙스, 상의/스커트 보다 원피스가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지각되었다. 의복과 모자 색상의 배색에서는 모자와 상의색이 무채색의 동색일 때를 기준으로 보면 동색인 유채색의 단색과 이색배색인 유사 · 대비배색 모두 대담하고 특이하고 강렬하고 화려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상반신 평가에서 모자색이 빨강이고 상의색이 동색일 때 가장 현시성이 높게 나타난 정혜선 · 강경자(2004)[44]의 연구 결과와 일치하고 단색과 2색 배색 모두 개성이 높게 평가되어 대담하고 화려한 이미지로 평가된다고 한 김유진(2004)의 연구[45] 결과와도 유사하게 나타나 현시성의 이미지를 주는 데는 다양한 색상 배색으로 표현이 가능하고 상반신을 평가할 때와 전신을 평가할 때나 배색에 의한 이미지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재질에서는 딱딱한 소재를 기준으로 볼 때 광택 나는 비치는 재질은 현시성이 높게, 부드러운 재질은 낮게 평가되었다. 이는 촉각적인 측면보다 시각적인 측면에서 재질효과가 부각될 때 특이하고 화려하고 대담하고 강한 이미지를 주는 것으로 평가한 선행 연구를 지지해 준다. 무늬에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볼 때 무늬 있는 것이 보다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무늬나 무늬의 배색으로 더 화려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강조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상에서 현시성을 나타내려면 조형요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큰 모자 종류 · 형태 · 무늬가 중요하며 모자 종류는 Cloche나 Bowler, Capeline을 쓰고 상의/슬랙스나 상의/스커트를 착용하면 수수하고 평범한 디자인으로 표현되고 Beret를 쓰고 원피스를 착용하면 대담하고 화려하고 특이한 디자인이 될 것이다.

〈표 5〉 현시성 요인에 대한 조형성 차이

조형요소				β	Type III SS	F-value
모자	종류		Beret	0.00	82.471	29.535**
			Cloche	−.302		
			Bowler	−.066		
			Capeline	−.057		
헤어	길이		미디움	0.00	4.942	2.477
			쇼트	.061		
			롱	−.013		
의복	형태		원피스	0.00	29.386	15.052**
			상의/스커트	−.181		
			상의/슬랙스	−.061		
	배색	동색	무채색	0.00	17.748	5.993**
			유채색	.132		
		이색	유사배색	.036		
			대비배색	.002		
	재질		딱딱한	0.00	30.388	10.377**
			부드러운	.075		
			비치는	.037		
			광택 나는	.118		
	무늬		무	0.00	14.767	14.946**
			유	.113		

** : $p<.01$,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4) 귀염성과 조형성

귀염성에 대한 조형성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6〉에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와 무늬를 제외한 헤어 길이, 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에서는 Beret를 기준으로 볼 때

43) 정혜선, 강경자, *Op. cit.*, p. 468.
44) 정혜선, 강경자, *Op. cit.*, pp. 354-368.
45) 김유진, *Op. cit.*, pp. 46-47.

〈표 6〉 귀염성 요인과 조형성

조형요소				β	Type III SS	F-value
모자	종류	Beret		0.00	3.946	1.316
		Cloche		.005		
		Bowler		−.034		
		Capeline		−.057		
헤어	길이	미디움		0.00	28.620	14.649**
		쇼트		−.141		
		롱		.041		
의복	형태	원피스		0.00	66.212	35.065**
		상의/스커트		.123		
		상의/슬랙스		.276		
	배색	동색	무채색	0.00	17.320	5.846**
			유채색	.084		
		이색	유사배색	.104		
			대비배색	.146		
	재질	딱딱한		0.00	82.677	29.614**
		부드러운		.180		
		바치는		−.152		
		광택 나는		−.005		
	무늬	무		0.00	.041	.041
		유		.006		

** : $p<.01$,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Capeline과 Bowler는 Cloche와 Beret보다 귀염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Capeline과 Bowler를 착용하면 성숙하고 드레시하고, Cloche와 Beret는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선행 연구[46]에서 상반신 자극물이나 전신 자극물에 상관없이 귀염성 이미지를 주는데 모자 종류가 중요하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헤어 길이에서도 모자를 쓰지 않았을 경우와는 달리 미디움을 기준으로 볼 때 쇼트는 귀염성이 낮고 롱은 귀염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어 헤어 길이가 동일하더라도 모자 유형에 따라서 귀여운 이미지의 정도가 다르게 지각될 수 있음을 의미한 선행 연구의 결과를 부분적으로 지지한다. 형태에서는 원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상의/슬랙스, 상의/스커트 모두 스포티하고 경쾌하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모자와 의복의 배색에서는 무채색의 동색을 기준으로 보면 동색의 유채색과 유사 · 대비배색의 이색배색이 모두 높게 평가되었다. 동색의 무채 · 유채보다 이색배색인 대비배색이나 유사배색과 다양한 색의 배색 방법이 귀엽고 스포티하고 어려보이는 이미지로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이는 복합배색이 단색과 2색보다 젊은 감성으로 평가된다는 선행연구[47]를 지지해 준다. 재질에서는 딱딱한 재질을 기준으로 볼 때 딱딱한 재질보다 부드러운 소재는 귀엽고 어려보이는 것으로, 비치고 광택 나는 재질은 성숙하고 드레시한 이미지로 평가 되었다. 이상에서 귀여움을 부각시키려면 유의적인 차이가 큰 형태, 재질 선택이 중요하며, 형태는 원피스보다 상의/슬랙스, 상의/스커트를 착용하고 부드러운 재질을 선택한다면 스포티하고 부드럽고 귀여운 디자인에 효과적이 될 것이다.

5) 경연성과 조형성

경연성에 대한 조형성 차이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 헤어 길이, 형태, 모자와 의복의 배색, 재질, 무늬의 모든 조형요소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의복형태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자 종류에서는 Beret를 기준으로 볼 때 Capeline과 Cloche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Bowler는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헤어 길이에서는 미디움을 기준으로 볼 때 쇼트, 롱은 미디움보다 딱딱하고 차가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형태에서는 원피스를 기준으로 볼 때 상의/스커트는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고 상의/슬랙스는 딱딱하고, 차갑고, 여성스럽지 않은 이미지로 평가되어 하의 형태에 따라 여성적인 이미지와 다르게 평가됨을 알 수 있다. 모자와 의복의 배색에서 동색의 무채색을 기준으로 볼 때 이색배색과

46) 정혜선, 강경자, *Op. cit.*, p. 469.
47) 김유진, *Op. cit.*, p. 44.

동색 유채색 모두 경연성이 높게 평가되어 단색보다 이색배색의 다양한 연출로 이러한 이미지가 평가됨을 알 수 있다. 재질에서는 딱딱한 재질을 기준으로 볼 때 딱딱한 재질보다 부드럽고, 비치고, 광택 나는 재질이 부드럽고 따뜻하고 여성스러운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무늬에서는 무늬가 없는 것을 기준으로 보면 무늬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것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상에서 경연성을 나타내려면 조형 요소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큰 형태, 재질이 중요하며 형태는 상의/스커트로 부드럽거나 비치는 재질을 사용하면 부드럽고 여성스러운 감성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효과적일 것이다.

〈표 7〉 경연성에 대한 조형성 차이

조형요소				β	TypeIII SS	F-value
모자	종류	Beret		0.00	40.725	14.036**
		Cloche		.118		
		Bowler		−.051		
		Capeline		.147		
헤어	길이	미디움		0.00	30.006	15.378**
		쇼트		−.168		
		롱		−.032		
의복	형태	원피스		0.00	75.979	40.604**
		상의/스커트		.016		
		상의/슬랙스		−.248		
	배색	동색	무채색	0.00	26.073	8.869**
			유채색	.089		
		이색	유사배색	.181		
			대비배색	.119		
	재질	딱딱한		0.00	74.821	26.605**
		부드러운		.231		
		비치는		.219		
		광택 나는		.044		
	무늬	무		0.00	5.789	5.813*
		유		.071		

* : $p<.05$, ** : $p<.01$, β: 표준화된 회귀계수.

V. 결 론

의복 형태, 의복과 모자 색상과의 배색,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재질과 무늬에 변화를 주어 제작한 총 96개의 자극물에 대한 패션 이미지 차원을 밝히기 위해 31쌍의 형용사쌍을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요인, 품위성 요인, 현시성 요인, 귀염성 요인, 경연성 요인의 5개 요인으로 도출되었으며, 패션 컬렉션에 나타난 모자와 패션 이미지의 조형성을 분석한 결과 의복 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과의 배색 관계, 모자 종류, 헤어 길이, 의복과 모자의 재질과 무늬에 따라 이미지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매력성은 조형요소 중에서 모자 종류, 헤어 길이, 형태 재질에서 차이가 나타났으며 특히 모자 종류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나타내었다. 모자는 Beret, 헤어 길이는 길고 형태는 원피스 형태, 색상은 무채색인 동색이며, 비치는 거나 부드러운 재질에 매력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품위성에는 Cloche와 Bowler가 가장 품위 있고 원피스보다는 상의/슬랙스, 상의/스커트가 의복과 모자 색상의 배색 관계에서는 동색인 무채색이 또는 헤어 길이는 쇼트인 경우 재질은 하드인 경우 무늬는 없을 때 정숙하고 우아하며 품위 있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자 종류, 배색, 형태, 재질, 무늬의 모든 조형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무늬와 배색에서 두드러지게 차이를 보여 동색의 무채색, 무늬 없고 딱딱한 재질, 의복 그리고 Cloche, Bowler가 품위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현시성에서는 헤어 길이를 제외한 모자 종류, 배색, 형태, 재질 무늬의 조형요소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모자 종류와 형태 무늬에서 차이를 보여 Beret, 원피스 형태, 무늬가 있는, 광택 나는 재질이 대담하고 강하게 지각되어 현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귀염성은 조형요소중 모자 종류, 무늬를 제외한 형태, 배색, 재질, 헤어 길이에서 차이를 보였다. 특히 형태와 재질에서 두드러진 차이를 보여 형태는 상의/슬랙스, 부드러운 재질 그리고 헤어 길이가 길면 귀염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연성은 모자와 모든 조형요소에서 차이를 보였

다. 특히, 형태, 재질, 모자에서 큰 차이를 보여 형태가 상의/스커트이고, 부드럽고, 비치는 재질이 경연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Beret의 매력성을 높이기위해서는 위해서는 무채색 또는 유사 배색, 헤어 길이는 Medium이나 Long으로 하고, 비치는 재질, 현시성을 높이려면 유채색의 모자와 의복을 착용하고 재질이 광택이 있을 때, 귀염성을 높이고 싶을 때 상의/스커트의 착용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Cloche는 무채색, 딱딱한 재질의 Cloche는 품위성을 높이고 Medium 헤어 길이, 대비 배색, 부드러운 재질의 Cloche는 더욱 귀염성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Bowler의 품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헤어 길이는 Short에 상의/슬렉스는 무채색이고, 딱딱한 재질을 이용하면 Formal한 이미지에 맞는 품위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Capeline의 매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원피스와 비치는 재질, 현시성에는 원피스가, 경연성을 높이려면 원피스, 상의/스커트, 유사 배색이 유리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패션 이미지 평가에서 다루지 않았던 모자 종류를 헤어 길이, 의복 형태, 의복과 모자의 색상과의 배색, 재질과 무늬 등의 조형성 평가로 이미지 차이를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를 일반화 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으므로 후속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한 연구가 요구된다.

먼저, 자극물은 선정함에 있어 컬렉션 잡지를 1998년에서 2004년까지의 Gap press, Fashion news, Book moda, Book Moda Collezioni, Collection, Collezioni Donna을 중심으로 하였고 연구의 범위가 최근 7년간 컬렉션에 발표된 모자 스타일을 중심으로 빈도 분석하여 나타난 자극물의 결과이므로, 확대 해석에는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미지 평가 분석에 있어 모자 착용자의 얼굴을 통제하기 위해 CAD로 조작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델 이미지에 다소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모자 착용자의 이미지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모자 종류와 의복 형태, 다양한 배색과 문양, 기타 액세서리 착용 등을 고려한다면 좀 더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 더 나아가 패션 컬렉션과 실험적인 자극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 외에도 실제 패션 시장에서 많이 생산 소비되는 모자와 의복의 형태를 다양하게 포함시키고 연구 대상을 더 넓게 선정하여 각 디자인 변인 간의 다양한 비교와 특히 얼굴 형태나 체형을 고려한 연구가 된다면 액세서리의 코디네이션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참고문헌

김복숙 (1999). "여성헤어스타일의 인상효과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애경 (2003). "패션컬렉션에 나타난 Head Image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유진 (2002). "패션감성과 감정에 대한 의복조형성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경 (2003). "패션트렌드 분석을 통한 남성패션 스타일의 변화 모형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4권 6호.

나광주 (1989).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남미우, 강혜원 (1996). "관찰자의 의복태도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권 2호.

도주연 (1991). "헤어스타일 변화에 의한 얼굴이미지와 형태의 비교 고찰."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박혜경 (1991). "모자에 활용된 섬유재에 관한 연구 : 현대 여성용 모자를 중심으로."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희정 (2000). "Millinery Design의 특성과 시대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오해순, 이경희 (2002). "의복재질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9/1호.

윤소영 (2001).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윤수정 (2002). "패션트렌드의 다중화, 복합화 현상에 대한 질적 분석."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윤지성 (2000). "헤어컬러에 따른 이미지 변화에 관한 연구." 세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명희, 강승희 (1998). "장신구와 재킷색이 여성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2권 8호.

이은영 (1983). *복식의장학*. 서울: 교문사.

이주현, 조공호 (1995). "의상디자인요소가 의복착용자의 인상에 미치는 영향 (제1보):의복형태와 색채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19권 5호(1995).

이주현 (1990). "의복단서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임남영, 강승희 (2003). "의복유형과 헤어스타일이 남성의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1권 3호.

정해선, 강경자 (2004). "상의색과 모자색, 모자유형이 인상 형성에 미치는 영향." *복식문화연구* 12권 3호.

정해선, 강경자 (2004). "헤어스타일, 길이와 모자유형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8권 3/4호.

주소현 (2003). "여성 패션트렌드 분석을 통한 감성지표화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추선형, 김영인 (2002). "패션 소재의 색채이미지와 질감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권 2호.

Conner, B. H., K. Peters and R. H. Nagasawa. (1975). "Person and costume: Effects on the formation of first impressio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 No. 1.

Winakor, G. and R. Navarro (1987). "Effect of achromatic value of stimulus on response to women's clothing style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4, No. 2.

Davis, Marian L. (1990). *Visual design in dress*. New Jersey Prentice-Hall Inc.

Kato, Yukie (1995). "Effective factors for the impression of three-color design",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Vol. 46, No. 3.

Lennon, S. JI and F. G. Miller (1984~1985). "Attire, physical appearance, and first impressions: More is les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Vol. 3, No. 1.

Pancer, S. M. and J. R. Memdi (1978). "Length of hair and beardedness as determinants of personality impression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84.

Terry, R. L. and J. S. Davis (1976). "Components of facial attractiveness." *Perceptual and Motor Skills* Vol. 42.

Thurston, J. L., S. J. Lennon and R. V. Clayton (1990). "Influence of age body type, fashion, and garment type on women's professional imag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and* Vol. 19, No. 2.

山野清一郎, 尹藤純子, 牧眞理子 (1980). "イメ-ジ用語による シルエットの分類(4)."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卷 8号.